서 면 답 변 서

○ 김명신 의원

(질의요지)

□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통신비 지원 정책사업예산으로 84억 5,864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 사업은 그 성격상 학습효과 관련성이 적어 이를 서울시의 정보화기획단 등에서 시청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3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e-교과서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의거,'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교육청 고유**의 **교육자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교육청의 통신비 지원 사업은"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중"**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현장의 학습활동 지원과 관련성**이 있음

- 교육현장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교수활동의 증가에 따른 학생들간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e-교과서 활용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임

※ 2012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	지원대상	예산액
① 컴퓨터 지원	초1～고1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	15억 6,240만원
② 인터넷통신비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	68억 9,626만원

□ 아울러, 서울시(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중인"저소득층 청소년 u-러닝서비스"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등3 ~ 중등3년 3,000여명**에 대해 IT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지역아동복지센터와 자치구 등**에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습매니저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학습과 방문 학습관리를 통한 방과후 활동 지원임

□ 향후, 시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요지)

□ 서울시내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수입은 연 3억 1천만원(고입, 대입 검정고시 전형료 2만원) 규모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검정고시 제도임에도 관련 수수료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교육과학부령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운영비'로서 사업소관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2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하에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시의 공고·응시원서의 접수 및 고시의 시행
2. 출제·채점 및 합격증의 교부
3. 기타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질의요지)

□ 현재 교육협력국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방과 후, 문화예술, 평생 학습, 자기주도 학습 등 교육협력국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그 역할이 모호하고 사업성과 분석도 어려운 상황임. 2013년 사업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이런 각종 교육협력국 사업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교육협력국은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 사람을 위한 희망의 교육으로 사람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교육협력국 추진과제인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학교조성',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함께하는 나눔 교육'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 2013년에는 교육지원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수를 감축 조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성 및 소모성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우리시는 학습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질의요지)

□ 현재 각종 도서관 관계자들을 통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도서관이 장서를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열람석 확대로 인한 상대적인 서고부족 현상으로 기존에 보유중인 책도 버려야 할 실정이라고 함. 열람석의 확대보다는 장서의 확대를 통한 도서관 설립 취지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와 시장님의 태도는?

(답　　변)

□ 도서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와 자료들을 충분히 소장하고 인문교양과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적기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함. 최근 과도한 입시경쟁과 취업준비로 인해 '공부하는 열람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본래 기능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는 것이 현 상황임.

□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구립도서관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조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서울도서관-자치구 네트워크' 등을 통해 번모해가는 현 도서관 실태와 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 등을 통해 도서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음.

□ 현재 우리시는 도서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서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액 중 60%를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력으로 도서정거장을 통한 도서 기증 운동 활성화를 돕고

○ 10월 26일 개관하는 서울도서관에서도 '서울도서관 장서구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다량의 다양한 도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 앞으로도 도서관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도서관의 본질을 찾고,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도서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참고〕

< 서울시 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 >

-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12.6) -

○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 2011년 말 기준 **1인당 0.81권인 장서수를 2권 수준으로 향상**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매년 75만권 이상 확충하여 2022년도에 1인당 2권 수준 달성
-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액 중 60%를 도서구입비**로 지원
- **도서정거장을 통한 기증도서 접수**

【공공도서관(교육청·구립 포함) 연도별 장서 확충 계획】

(단위 : 만권,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30년
총 장서수	832	912	997	1,087	1,182	1,732	2,122
1인당 장서수(권)	0.81	0.89	0.97	1.06	1.15	1.68	3.11
자료구입 시비보조	2,160	2,700	4,200	6,024	9,744	13,104	19,824
※ 연간자료구입비	12,300	13,090	13,883	14,674	15,465	19,421	27,332

○ 서울도서관 장서 확충

- 서울시 대표도서관으로서 타도서관과 구별되는 장서구성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컨텐츠 자료를 점진적으로 확충
  - · 1단계 : 개관시 행정자료관의 장서이관과 전문도서 중점 구입
  - · 2단계 : 서울관련 자료의 납본도서 및 도서기증캠페인으로 자료 확충
  - · 3단계 : 최신 디지털 정보자료 확보 및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확충

【단계별 장서확보 및 구성비】

구분	1단계(2012년)		2단계(2017년)		3단계(2021년)	
	권수	구성비(%)	권수	구성비(%)	권수	구성비(%)
행정자료관(기존)	128,650	96	128,650	70	128,650	64
일반도서(구입) *	70,000		219,000		339,000	
기 증 도 서	-	-	50000	10	84,840	12
납 본 도 서	-	-	50,000	10	90,000	12
비 도 서	12,700	6	44,700	9	78,700	11
장 애 인	1,500	1	4,000	1	6,000	1
간 행 물	130	0	990	0	1,790	0
합 계	**212,980**	**100**	**497,340**	**100**	**728,980**	**100**

○ **전자책(E-book) 확충**

- 무선통신 기술발달로 모바일 태블릿 PC 등의 전자책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200,790종)은 **인쇄도서**(8,329,942권) **대비 2% 수준**임

- 서울도서관은 개관시 전자책을 8,071종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공공도서관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책의 비중을 현행 4% 수준에서 **2030년까지 3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공공도서관의 전자책을 확충하도록 하겠음

【 전자책 단계별 확충계획 】

(단위 : 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30년
총 전자책 수	200,790	210,790	230,790	260,790	300,790	650,790	2,100,790
연간전자책구입비	501	583	1,166	1,749	2,332	5,247	11,077
전체구입비 중 전자책 비율(%)	4	4.4	8	11	13.6	22	30

(질의요지)

□ 현재 서울시립대 입시전형 개선을 위한 TF팀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TF팀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100% 반영될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립대는 너무 그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립대 차원의 자체적인 대입전형 개선 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활동하고 양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여 대학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와 시립대학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서울시립대는 입학제도개선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전임 교무처장과 입학관리본부장, 교수협의회 대표, 학장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구성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교무처	교무처장	서 순 탁	
2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장	최 성 모	
3	교무처	입학사정관실장	이 주 헌	
4	영어영문학과	교수	임 종 성	·전 교무처장
5	수학과	교수	신 동 윤	·전 입학관리본부장
6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진 원	·전 입학관리본부장
7	통계학과	교수	김 규 성	·전 입학관리본부장
8	경영학부	교수	이 춘 우	·전 입학관리본부장
9	도시행정학과	교수	최 근 희	·교수협의회 대표
10	공과대학	공과대학장	김 의 용	·학장 대표

□ 이 서울시립대 내의 입학제도개선 자문위원단에서는 입학제도개선 기획단의 개선안이 나오면, 10월 중순에 입학제도 개선안을 심의하여 시립대 차원의 자체적인 대학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 이 후, 10월 말에 시의 시정고문단과 시에 설치된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임

(질의요지)

□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 기재의 비교육적 측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서울시립대가 학교폭력 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립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 교과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 기재로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 경기·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로 인해 대입지원 시 불이익 가능성,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 표명

□ '12년 9월 현재 20개 고교(경기 8, 전북 12)를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가 교과부의 요구대로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 이번 수시 전형에서 대학에 제공하였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사항('12. 9. 14)은

○ 대입전형 시 인성발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이후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변화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평가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우리 서울시립대에서는 이번 수시전형에서

○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기재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나,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학생을 불합격 조치하지 않을 것임

○ 또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심층면접 등을 통해 지원학생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질의요지)

□ 과거 서울시는 건강매점과 아침밥클럽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매점사업은 시범실시 이후 더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밥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업자들에게 내맡겨진 학교매점을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건강매점으로 개선하고 학교 생협으로 운영하여 학교가 교육생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강매점 사업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매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추진단계 및 현황

추진연도	추진단계	건강매점	아침밥클럽
2008년	1차년도(개발단계) : 실태조사 및 건강매점 운영모델 개발 연구	2개교	-
2009년	2차년도(적용단계) : 건강매점 모델 적용, 아침밥 클럽 모델 개발	10개교	8개교
2010년	3차년도(확대단계) : 서울시 기술지원, 자치구 실시확대 (자치구 매칭펀드)	24개교	16개교
2011년	4차년도(정착단계) : 자치구 정착실시	39개교	11개교
2012년	5차년도부터(정착 및 확산단계) : 자치구 정착 및 확산실시	49개교	9개교

※ 2010년부터 자치구와 매칭펀드(시비50%, 구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예산의 한계와 매칭에 따른 구비확보의 어려움으로 매년 10개씩 정도 확대하고 있음.

○ 초기 모형개발 당시부터 학교매점 운영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정책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12.01 시행됨에 따라 건강매점 운영이 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코자 합니다.

- 건강매점 운영방식을 협동조합형태로 변환을 유도하고, 식품 및 문구류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합원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수익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 장학금, 과일보조 기금, 조합원 교육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모형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가격 급락폭이 큰 과일가격과 수급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등과 연동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 학교보안관 사업은 학교안전에 대한 상징성으로 인해 쉽게 없애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 안전이나 돌봄사업으로 바꾸는 등 박원순식으로 컨셉과 철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금을 받는 퇴직자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여성, 청년 등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돌봄 컨셉으로 이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학교보안관사업은 ′10. 6월 초등학교내 성범죄사건 발생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 ′07년부터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되어 오던 배움터지킴이를 기간제 근로자로 강화하여 ′11.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당초 학교보안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상담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채용시, 연령, 성별, 지역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자격조건을 두지 않았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어린이 안전보호 및 폭력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者면 누구든지 응시가능토록 함

※ 학교보안관 응시 및 우대조건 (채용 공고안)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청소년 상담·지도에 관한 자격·경력 보유자 및 보안관련 경험자 우대
※ 성범죄 경력자 및 신원상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가

□ 실제 채용결과, 학교보안관의 낮은 급여 등으로 일부 젊은 합격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등 평균연령은 만63세로 나타났고,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관계로 여성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등 인력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급여 : '11년 - 약 88만원, '12년 - 약 110만원

○ 근무시간 : 07:30~21:00(2교대 근무)

○ 성별·연령별 현황 : 평균 연령 만 63세

구 분	계	42~49	50~54	55~59	60~64	65~69	70~78
계	1,108명	14 (1.3%)	37 (3.3%)	185 (16.7%)	482 (43.5%)	303 (27.3%)	87 (7.9%)
남	1,073 (96.8%)	6	30	180	480	293	84
여	35 (3.2%)	8	7	5	2	10	3

□ 그럼에도 서울시는 마을안전과 돌봄컨셉을 통해 아이들과 학교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 향후 학교보안관이 가급적 학교주변에 거주하면서 마을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 여성 학교보안관이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학교측에 협조요청 하겠으며

○ 학교장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에 공동대응토록 하겠음

(질의요지)

□ 2012년 시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1,810억이었음. 학부모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고급화사업(학교 리모델링 사업이나 화장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함.

따라서, 25개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년에 한 학교씩 리모델링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견해는?

(답 변)

□ 학교 시설의 개보수 사업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신·증·개축,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는 교육청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신속히 요구되는 위험시설 또는 위생적으로 열악한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음

□ 1년에 자치구별 1개교씩 리모델링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면 소수의 일부 학교만 수혜를 보게 될 것임

○ 특히,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강남, 서초 등)는 많은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노원, 도봉 등) 학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는 해마다 많은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 학교에만 지원될 것이며,

○ 또한, 리모델링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한 학교에 미치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한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 그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복 지원 및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자치구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 여러 가지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최우선 필요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추진하겠음

□ 2013년에는 그간 학생들의 주요 불만 요인이었던 책걸상, 급식시설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실, 위험난간, 계단 등 위생 및 안전시설물의 개·보수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질의요지)

□ 평생교육과 학교 밖 학생지원은 교육청에서 따로 분류하여 서울시에서 도맡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서울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평생교육법상 서울지역의 평생교육관련 업무는 시와 시교육청이 협의하여 추진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음(법 11조, 12조)

□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봄

○ 이를 위해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각급 학교의 자원과 더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 풍부한 인적, 물적(공간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기관별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수는 '08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나,'11년의 경우 총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함

- 학교폭력, 경제사정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증가로 추정됨

❍ 전국 및 서울시 현황

- 전국적으로 '11년도 76,589명(1.1%)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였으며
- 서울시는 '11년도 18,578명(1.5%)으로 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전 국	총 재학생	6,986,847	7,236,248	7,447,159	7,617,796
	학교 밖 청소년	76,589 (1.1%)	61,910 (0.9%)	71,769 (1.0%)	73,494 (1.0%)
서울시	총 재학생	1,219,799	1,274,028	1,322,427	1,361,007
	학교 밖 청소년	**18,578 (1.5%)**	13,381 (1.1%)	16,255 (1.2%)	16,723 (1.2%)

(자료출처 :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년)

□ 입시경쟁·학교폭력 및 가정경제 사정 등 사회적·교육적 현실로 학교 밖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변화된 환경 부적응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12.5.9,시장방침 제151호)”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지자체 최초로 수립된 우리시“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은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조기발견부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까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 대폭 확대하고자 대안학교 및 징검다리 프로젝트 확대 지원하고

- 대안학교 지원 :‘11년 17개 학교, ’12년 28개 학교, ‘14년 40개 학교
- 징검다리 프로그램 지원 : ‘11년 3개, ’12년 10개, ‘14년 30개

○ 대상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아웃리치 활동 강화, 전문상담·보호를 위하여 자치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11년 20개소, ’12년 22개소, ‘14년 25개소), 인터넷중독예방센터(′11년 4개소→ ′12년 5개소 ′14년 6개소) 확대 설치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쉼터 확대(‘11년 11개소, ’12년 12개소)와 고위험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센터(‘12년 10월) 개소·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야식비 및 전세자금을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학생 인턴십 및 직업체험 전문공간(두드림존)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허브역할과 맞춤형 지원 창구, 정보제공,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신설하였으며

○ 대안교육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종합지원센터 마련

□ 아울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가제정·시행〔2012.7.30〕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겠음

□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두 기관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지원을 위해 협력하여 추진하겠음

(질의요지)

□ 서울시 집행부 내 교육사업과 청소년사업 등이 과도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를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현재 검토·작성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제출토록 하겠음.